

3부  
다양한 문화자본의 모빌리티



Ⅳ

필리핀의 텅 빈 이탈리아식 빌라가 집일 때:  
재이탈리아 필리핀 가사노동자의 소비기호학,  
1980년대~2018년

미나 로세스Mina Roces

뉴사우스웨일스 대학교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소비는 필리핀 이주민의 삶에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다. 그것은 그들이 이국 땅에서 참고 버티는 온갖 고된 일에 대한 보상이다. 소비력을 통해 그들은 중간계급 필리핀인으로서의 향상된 지위와 이국적 취향을 가진 세계인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과시할 수 있다. 이탈리아의 필리핀 가사노동자들은 힘들게 번 급여를 필리핀의 이탈리아식 빌라 건축과 가구 비치, 유명 상표의 옷과 악세사리 구매에, 또 데 뷔탕트 불<sup>1)</sup>, 생일, 결혼기념일 등의 통과의례를 축하하는 대형 파티에 지출한다. 또한 이들은 최근 수년 동안(대략 2010년 이후) 유럽과 필리핀을 여행하는 관광객이 되었다. 소비의 장소가 여러 국가에 걸쳐 있는 유동적 에스닉 집단의 경우 이들의 지출을 기호학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과시적 소비 행동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집’이

어디에 있는지를 둘러싸고 일상적으로 상충하는 감정을 느끼는 이탈리아의 필리핀 이주자들에게 집 만들기 그리고 이동하는 가정성 프로젝트는 매우 도전적인 과제이다. 파도바와 밀란에서 일하는 라구나주(마닐라 시에서 차로 1시간 반 거리) 출신의 필리핀 가사노동자들은 이주자의 귀향을 기다리며 1년 내내 비어 있는 이탈리아식 빌라를 지어 산타로사, 칸루방, 칼람바의 마을들을 부유한 근린지구로 변모시켰다. 2년에 한 달꼴로 휴가차 고국을 방문할 때 이용하는 이들 주택은 소유자들이 집 안을 여러 물건들로 채움으로써 가정성을 수행하는 공간이다. 그들이 생활하고 일하는 곳에서 수천 마일이나 떨어진 이 텅 빈 주택이 그들의 ‘집’인가? 아니면 ‘집’은 그들이 자신들의 생일을 기념하는 곳인가?

나는 여기서 구별짓기 전략과 모방 전략에 관한 피에르 부르디외의 일부 개념들을 적용하고자 한다.<sup>2)</sup> 이탈리아의 필리핀 이주자노동자가 경제자본을 획득함에 따라 그들은 이탈리아와 필리핀 상층계급의 소비 관행과 취향을 모방한다. 부르디외의 데이터에서는 두 계급에 동시에 걸쳐 있는, 즉 이탈리아에서는 하층계급에 속하지만 필리핀에서는 중간계급의 지위를 획득하는 이주자의 유동적이고 국제적인 위치는 고려되지 않는다. 소비의 변화를 통해 시골 여자(*provincianas*)에서 도시화된 세계인으로 변모함으로써 그들은 모종의 문화자본을 획득할 수 있다.

이주 학자들은 필리핀-에콰도르-멕시코 이주민들에게 송금 주택(*remittance house*)이 갖는 의미를 연구해 왔다.<sup>3)</sup> 이러한 집을 지을 경제적 여유가 없어 보인다는 점에서(이들 주택은 임대할 수도 매각할 수도 없다) 학자들은 송금 주택이 “해외 노동의 기념비”<sup>4)</sup>로 건설된다고 주장해 왔다. 또 소유자들은 고국에 남아 있는 부모나 친척들이 방 한두 칸을 차지하거나 이주자가 은퇴할 때까지 집을 돌보게 함으로써 효도의 기대를 충족하기도 한다.<sup>5)</sup> 나아가, 이주자와 그들이 떠나온 마을을 연결한다는 점에서 이 집은 “소속감의 장소, 미래 인생계획의 저장소,

또 그들의 사회적 지위를 협상하는 수단”이 된다.<sup>6)</sup> 인류학자 페리 플레처(*Peter Fletcher*) 또한 미국에 거주하며 일하는 멕시코인들이 사람이 살지 않는(그리고 대개는 완공되지 않는) 송금 주택(*casas solas*, 즉 고독한 집)을 짓는 것을 “정체성과 차이의 구축에 점점 더 핵심적인 소비 행위”이자 “가족과 공동체에 대한 관념들이 가득 들어차고 충돌하는 장소, 낯은 관행과 새로운 관행이 때로는 경쟁하고 때로는 흡수되는 장소”로 해석했다.<sup>7)</sup> 그녀는 *la casa de mis sueños*, 말 그대로 내 꿈의 집이 나피사로 마을 사람들에게 하나의 역설이라는 결론을 내린다. 집이 가족의 결합을 나타내지만 “그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가족의 재결합을 불가능한 꿈으로 만들기”<sup>8)</sup> 때문이다. 또 건축, 물리적 공간, 실행(*displacement*)을 아우르는 학제간 연구 분야에서 작업하는 학자들은 이탈리아 속의 집 만들기(*making home in displacement*)가 어떻게 ‘공간적 전환’(*spatial turn*)을 다룬 문헌들에서 말하는 ‘사회적 공간’에 관계할 뿐만 아니라 ‘공간적 공간’(*spatial space*)과도 관련되는지 주목해 왔다.<sup>9)</sup> 이러한 의미에서 이주자들은 ‘공간적 행위성’을 갖는다. 여기서 그들은 또한 ‘건축가로서의 이주자’로도 파악된다.<sup>10)</sup>

본 연구는 이러한 해석을 넘어 이주자들이 시골 여자에서 국제적 주체로 변모하는 과정에서 소비가 어떻게 개입하고 있는지 분석할 것이다. 필자는 실거주자가 없지만 여러 물건들로 가득찬 주택을 통해 이주민들이 중간계급, 유희화된 필리핀인으로서의 새로운 정체성을 표현하는 장소로 ‘집’(*home*)을 재정의했다고 주장한다. 송금주택은 이주자들이 보유한 가처분 소득을 공개적으로 과시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역할을 수행한다. 필자는 송금주택의 이러한 역할을 부각하기 위해 송금주택과 더불어 이주자들의 기타 지출 습관을 함께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이러한 점에서 필자는 송금주택에 관한 선구적 작업을 통해 필자에게 많은 것을 알려 준 학자들과 달리 이주자의 과시적 소비라는 전체

적인 맥락에서 송금주택을 분석한다. 필자는 가족들을 연결하고 국경을 가로질러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주택의 역할에서 벗어나 유럽화된 정체성과 중간계급의 지위를 표현하는 수단으로서의 주택, 또 노동계급의 낙인 없이 새로운 정체성을 기념하는 공간으로서의 주택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일터에서 멀리 떨어진 송금주택의 위치 또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는 그들의 소비 공연을 지켜보는 관객들이 해외 일터에서 일하는 이주자의 모습을 결코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의상의 변화, 관광 여행, 대규모 축하행사를 비롯한 소비 행동은 이주자들이 노동하는 자아에 의해서만 정의되는 것을 거부함을 상징한다. 또한 주택의 가구 비치를 비롯한 가정성의 물질적 표현은 이주 프로젝트가 성공했다는 고무적인 메시지를 전한다. 이탈리아 빌라 스타일로 지어진 송금주택은 매우 특별한 목적을 수행한다. 여가 시간 동안 이탈리아 중간계급에 속하는 그들의 고용주처럼 옷을 입고 여행하며 행동한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에 있는 한 이들 이주자들은 가사노동자라는 꼬리표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주자들이 휴가를 보내기 위해 2년마다 고향 마을로 돌아올 때 그들은 유명인 같은 환대를 받는다.<sup>11)</sup> 그들은 유명 브랜드 옷과 값비싼 핸드백을 걸치고 선물 보따리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온다. 모두의 존경을 받지만, 화장실 청소, 반려동물 먹이 주기, 정원 손질, 음식 준비, 노인 목욕시키기 등의 고용 현실에 대해 말하는 이는 아무도 없다. 사실 많은 NGO들은 고국의 가족들이 그들에게 부쳐지는 송금을 당연하게 여기는 한 가지 이유가 이주자들이 매일 같이 힘들게 마주하는 고된 노동의 현실과 그들의 주변적 지위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불평한다.<sup>12)</sup> 이런 점에서 유럽화된 중간계급 필리핀인으로의 변신은 필리핀에 있는 웅장한 송금주택 안에서만 기념될 수 있다. 이탈리아에서 그들은 여전히 노동계급 가사노동자라는 주변인이기 때문이다.

## 연구방법

본 연구 프로젝트는 파도바와 밀라노에서 23명의 필리핀 여성(가사노동자 또는 간병인, 아파트 관리인 1명 포함, 전업주부 1명 포함) 및 3명의 남성(관리인 1명 포함)과 진행한 면접에서 수집된 구술사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면접의 주제는 패션, 파티, 관광 여행, 필리핀 내 주택의 가구 비치에 대한 지출을 포함한 그들의 소비 행동이었다. 필자는 또한 밀라노에서 근무하지만 휴가를 위해 필리핀 라구나주 산토케에 와 있던 한 제보자와도 몇 차례 면접을 실시했다. 면접은 평균 2~4시간이 소요되는 심층면접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4명의 여성과는 2회 이상의 면접을 실시했다. 역사학자로서 필자의 본 연구는 1946년 이후의 필리핀 여성의 소비 역사를 주제로 한 상위 프로젝트의 일환이며 필리핀 이주자의 소비행동을 다룬 필자의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sup>13)</sup> 필자는 2015년 11월 예비면접 착수를 위해 각각 1주일간 밀라노와 파도바를 방문했으며 2018년 8월에는 파도바를 재방문해 한 달에 걸쳐 추가 심층면접을 실시했다. 필자는 또 2회의 생일파티, 2회의 데뷔당트 볼, 4회의 만찬 파티, 1회의 기도 모임(파도바), 1회의 가톨릭 미사(필리핀인들의 성당으로 알려진 밀라노 산 스테파노 성당, 두오모 성당 오른쪽 옆)를 비롯해 피면접자들의 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민족지학 작업을 실시했다. 필자는 2013년 재이탈리아 필리핀인들이 세운 이탈리아 식 빌라를 보기 위해 필리핀 라구나주 산토로사의 마을에 다녀온 바 있다. 필자는 또 필리핀인들을 위한 관광 여행을 준비한 파리의 한 필리핀인 여행사 직원, 필리핀 이주자들에게 아파트를 판매한 필리핀 부동산 회사(센츄리프러퍼티즈사<sup>Century Properties</sup>, 필리베스트스<sup>Filinvest</sup>, 락웰사<sup>Rockwell</sup>), NGO ATIKHA의 창립자와도 면접을 가졌다. NGO ATIKHA는 라구나

주와 바탕가스주에서 이주자 가족들과 함께 일했으며 전 세계에서 금융 교육 세미나를 개최했다(파도바의 제보자 중 일부도 해당 세미나에 참석하였다). 민족지학 작업에는 ATIKHA가 주최한 두 번의 금융교육 세미나 참석이 포함되었다. 한 번은 2016년 8월 싱가포르에서 현지 필리핀 가사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것이며, 다른 한 번의 세미나는 필리핀에 남아 있는 이주자 가족들을 대상으로 2019년 필리핀 불라칸주에서 개최되었다. 익명성 보호를 위해 피면접자의 이름은 모두 가명을 사용하였다. 피면접자들은 산타로사, 산로케, 칼람바, 칸루방 지역 출신이며 해당 지역은 모두 라구나주에 속한다. 산타로사 지역민들은 매우 폐쇄적인 집단으로 자신들의 모임에는 이방인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모든 면접은 타갈로그어/필리핀어로 실시되었다. 피면접자 대부분이 이탈리아어에 능통하지 못했기 때문에 필자가 참석한 모든 행사에서도 동일한 언어가 사용되었으며 한 명만이 완벽하게 유창한 영어를 사용했다(필리핀 엘리트 여성 전용 가톨릭 학교에서 근무한 전직 고등학교 교사).

필자가 파도바를 선택한 이유는 밀라노나 로마에 비하면 작은 도시이긴 하나(2017년 기준 인구 21만 명) 인구수에 비해 많은 필리핀인들이 있음을(약 1.5%)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메스트레와 파도바의 필리핀인 단체에서 두드러지고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회원인 조셉에 따르면, 면접이 실시된 2018년 8월 현재 파도바에는 약 2천 명 이상의 필리핀인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 중 약 30~40%는 라구나주 산타로사나 알라미노스(산토로사 인접 도시) 출신이다.<sup>14)</sup> 그는 파도바의 필리핀인들 중 약 30%는 (“리를 이탈리아” 빌라도도 유명한) 바탕가스주 출신이라고 언급했다. 필자는 2013년 처음 산타로사를 방문했다. 산타로사는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필리핀인들이 그곳에 지은 많은 이탈리아식 빌라 때문에 필리핀의 “리를 이탈리아”라는 명성을 얻은 곳이다. 현장 연구를 진행하는 동안 필자는 이들 지역 소유자의 대부분이 이탈리아의 파도바와

밀라노에서 일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파도바 내 필리핀 가사노동자의 또 다른 주요 집단은 모두 라구나주에 소재한 카룬방, 칼람바, 알라미노스 지역 출신들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파도바는 재이탈리아 필리핀인들에 대한 사례 연구를 진행하기에 이상적인 장소였다.

면접을 한 여성들 중 5명은 한부모 어머니였으며 필자는 결혼한 적이 없었다. 몇몇 여성들은 필리핀에 가족들을 남겨두고 이탈리아에 왔으며 가족 중 일부만 같이 이탈리아에 거주하고 나머지 가족들은 필리핀에 남아 있는 경우도 있었다. 일부 여성들은 임대 아파트의 일부를 빌려 살았으나 고용주가 소유한 아파트나 방갈로를 무상으로 제공받는 여성들도 있었다. 자폐증 아들이 있는 한 가족은 이탈리아 정부가 장애 아동을 위해 제공한 침실 세 개가 딸린 다소 큰 아파트에서 생활할 수 있었다. 모든 피면접자들의 이름은 가명을 사용하였다.

더불어 필자는 페이스북 게시물을 1차 자료로 활용했다. 필리핀인들은 풀리미디어, 특히 휴대폰의 열성적 사용자들이었으며 지금도 여전히 그러하다.<sup>15)</sup> 페이스북 게시물은 소비 연구에 활용될 수 있는 매우 풍부한 자료였다. 파도바의 필리핀인들은 이탈리아 내 필리핀인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고국의 친척·친구들과 소통하는 방법으로 파티, 통과의례, 쇼핑, 활동, 여행 경험 등을 담은 사진과 동영상을 규칙적으로 게시한다. 필자는 이후 피면접자가 된 몇몇 여성들과 페이스북 친구가 되었으며 산타로사 지역 출신들로 구성된 페이스북 그룹의 회원으로 받아들여졌다. 필자는 많은 사진을 찍어 그들과 공유했으며 그들은 이 사진들을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게시했다. 필자는 또 몇몇 피면접자들의 개인적인 가족 스카랩북을 들여다 볼 특별한 기회를 누렸다. 그들은 유럽 여행이나 필리핀 휴가 등의 추억과 삶의 주요 사건들에 대한 기억을 기꺼이 필자와 공유하였다.

임의의 여성 집단으로부터 수집된 면접 또는 질적 데이터에 의존하는

연구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면접은 물론 여성들이 연구자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만 제시하면서 스스로를 재창조하는 훌륭한 기회가 되었다. 다른 한편으로 필리핀 여성들과의 교류와 면접 경험 자체, 더불어 페이스북 게시물 열람은 그들의 여가 생활에 대한 많은 유용한 통찰력을 제공해 주었다. 이는 특히 그들의 페이스북 게시물에 그들이 일하는 모습이 전혀 언급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페이스북 게시물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사용자가 스스로에 대해 말하고 싶은 것만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페이스북은 소비를 통한 자기 표시이라는 주제를 분석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풍부한 서고였다. 여러 인류학자들은 페이스북 등의 폴리미디어를 통해 관계가 어떻게 매개되는지를 설득력 있게 입증한 바 있다.<sup>16)</sup> 페이스북 게시물은 정서적 지지대를 제공하지만 또한 관계를 단절하고 “쉽게 감시될 수 있는 공개적 규율 전략”으로 기능할 수도 있다.<sup>17)</sup>

## 이탈리아의 필리핀 가사노동자

필리핀인들의 이탈리아 노동 이주는 그 역사가 길지 않은 매우 최근의 일이다. 필리핀과 이탈리아 사이에 협정이 체결되면서 1977년부터 필리핀 이주자들은 가사도우미로 일할 수 있게 되었다.<sup>18)</sup> 1995년에는 2십만 명 이상의 필리핀인들이 이탈리아에 정착하게 되며 이들 중 절반 정도는 로마에 거주했다.<sup>19)</sup> 공식 기록에 따르면 2003년 합법적 필리핀인 거주자의 수는 74,030명이었으며 이 중 64%는 로마, 플로렌스, 밀라노, 토리노, 나폴리, 파르마, 볼로냐, 메시나 등의 대도시를 중심으로 가사도우미, 간병인, 유아돌보미와 같은 서비스 부문에 종사하는 여성들

이었다.<sup>20)</sup> 노인 및 아동돌봄은 이주여성 노동에 대한 수요가 높은 부문으로 확인되었으며 필리핀인과 더불어 모로코인들과 같은 다른 이주자 집단이 이처럼 수요가 많은 분야에서 일했다.<sup>21)</sup>

20세기가 끝나갈 무렵 로마의 단시간 노동자들이 월평균 1,229달러의 임금을 받았던 반면 입주 노동자들은 722달러를 벌었다.<sup>22)</sup> 2001년 이전 노인을 돌보는 이들이 평균 778달러를 집으로 가져간 반면에, 입주 가사노동자들은 600유로의 최저임금을 받았다.<sup>23)</sup> 바사<sup>Basa</sup>, 데 구즈만<sup>de Guzman</sup>, 마르체티<sup>Marchetti</sup>의 연구에 따르면 (동일 기간) 이들이 면접한 사람들의 대다수는 700유로에서 1,400유로 사이의 수입을 올렸다.<sup>24)</sup> 이러한 차이는 부분적으로 거주 여건에 의해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sup>25)</sup> 일부 노동자는 사용자의 집에 거주하면서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를 받았다. 하지만 필자가 파도바와 밀라노의 필리핀 가사노동자와 면접한 결과에 따르면 이런 상황에서 일하는 이들은 주거비와 생활비가 거의 들지 않으며 별도의 아파트가 제공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저축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sup>26)</sup> 필자와 면접한 제보자들의 급여 수준은 다양하게 나타났다. 제보자들의 일부는 여러 명의 사용자에게 단시간 근로를 제공하기 때문이었다. 1990년대 처음 이탈리아로 이주했을 때 케이터는 매달 600유로를 받았다. 사용자를 바꾸고 청소와 유아돌봄 일을 함께 하면서 급여는 800~900유로로 증가했다. 하지만 2018년부터 성형외과 의사 부인을 위해 일하게 되면서는 매달 1,350유로를 받았다. 케이터는 그녀를 위해 다리미질을 제외한 모든 일을 했다. 여성들은 현금 및 장남감·의류·휴대폰·컴퓨터 등의 선물에 더해 임금의 대략 절반을 송금으로 보냈다.<sup>27)</sup> 다른 세 형제들도 이탈리아에서 일하고 있는 제보자 중 한 명은 모든 형제들이 산타로사에 살고 있는 노부모를 지원하기 위해 매달 50유로를 송금한다고 밝혔다.

이들 여성들은 어떻게 이탈리아 사회에서 주변화되었을까? 학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이탈리아어가 유창하지 않다는 점은 이들이 가사 노동 분야를 벗어나지 못하는 주요한 요인이다. 이탈리아에서 두 아이를 낳은 조셀은 이탈리아의 필리핀 가사 노동자 자녀들이 이탈리아에서 대학 졸업에 성공한 예가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털어놓았다.<sup>28)</sup> 필자가 면접한 나타샤는 젊은 필리핀계 프랑스 여성으로 매우 특별한 사례에 해당했다. 그녀의 어머니(가사노동자)는 파도바에 왔을 당시 한부모 어머니였다. 그녀는 (5살 때부터) 이탈리아에서 자랐다. 그녀의 어머니는 그녀를 필리핀 마닐라의 라살대학교로 진학시켜 대학학위를 이수하도록 했다. 필리핀의 대학 등록금이 이탈리아보다 훨씬 더 저렴한 데다 라살대학교는 라살 형제가 운영하는 사립대학으로 필리핀의 3위 대학에 해당하기 때문이었다. 라살대학교는 영어로 가르쳤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은 졸업과 함께 영어와 이탈리아어, 또 타갈로그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게 될 나타샤에게 이점이 많았다. 그녀는 직업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갖고 영국 회사의 좋은 일자리를 얻게 된 것이 이탈리아어와 영어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능력 때문이라고 믿었다.<sup>29)</sup> 하지만 나타샤의 사례는 매우 예외적인 것이다.

밀라노에 거주하는 한 제보자는 가사와 간병 일자리에서 아파트 단지의 관리인으로 자리를 옮길 수 있었다.<sup>30)</sup> 이것은 가사노동에서 승진한 것처럼 보였으며 관리인 직책에는 같은 단지 내의 무상 임대아파트도 딸려 있었다. 조셀 역시 아내가 간병인으로 일하고 있던 파도바에서 관리인 일자리를 찾았다.<sup>31)</sup> 이탈리아인과 결혼한 극소수의 사람들은 다른 유형의 일자리를 찾아볼 수 있었다. 베라는 그녀의 이탈리아 남편과 결혼할 당시 한 공장에서 재봉사로 일하고 있었다. 이혼 후 그녀는 가라오케 가수로 개인 사업을 시작하였다.<sup>32)</sup> 이탈리아인 자영업자와 결혼한 또 다른 필리핀인 재퀴 역시 간병인 일을 그만두고 출장요리 사업을 시작하려 하고 있다.<sup>33)</sup> 이와 달리 필자가 면접한 이들 중 가장 논리정연

했던 루이즈는 대학 학위가 있고 필리핀의 엘리트 여성들이 다니는 한 수녀원 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한 경험도 있었지만 가사노동 외의 다른 일자리를 얻을 수 없었다(이는 아마도 그녀가 이탈리아어를 유창하게 구사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sup>34)</sup> 필리핀의 등록간호사인 달라는 자신의 자격증을 인정받지 못해 간병인으로 밖에 일할 수 없다는 사실에 좌절감을 느끼고 있었다. 달라는 자신의 상황에 대해 매우 큰 불만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대처하는 유일한 방법은 고용주의 집을 청소하면서 빗자루, 화장실 청소제, 스펀지 등에 겹차, 체온계와 같은 의료기구의 이름을 붙임으로써 여전히 간호사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었다.<sup>35)</sup> 필자가 느끼기에 이러한 대처 전략은 필리핀의 지방 병원에서 등록간호사로 일한 이전의 직업 경력과 파도바에서 간병인과 가사노동자로 일하는 현 상황 사이의 커다란 간극을 부각시킬 뿐인 것처럼 보인다.

## 시골 여자에서 패셔니스타로

이탈리아가 자신을 어떻게 변화시켰다고 물었을 때 린다는 이렇게 대답했다. “필리핀을 떠났을 때 전 시골 여자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더 이상 시골 여자가 아니에요.”<sup>36)</sup> 자신의 변화에 관한 린다의 분석은 필자가 면접한 제보자들의 경험에 의해 반향되고 사용자들의 취향을 모방하면서 습득한 그들의 새로운 습관과 실천에 의해 뒷받침되었다. 그들은 이탈리아로 떠나기 전의 자신을 ‘시골 여자’, 즉 취향이 단순하고 작은 마을 밖의 세상일에는 별 관심이 없는 여자로 묘사했다. 이탈리아 이주는 그들을 변화시켰다. 이러한 변신은 의상의 변화로 나타났다. 산타로사나 칼람바, 또는 칸루방에 살 때 그들이 드레스를

입거나 화장을 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 또 대개는 의류 브랜드 광고에는 관심을 갖지 않았다. 예컨대, 이탈리아로 이주하기 전 칸루방에 살았던 린다는 청소복이 자신의 '유니폼'이었으며 립스틱을 발라본 것은 지역 미인대회에 참가했을 때뿐이었다고 털어놓았다.<sup>37)</sup> 제보자들이 벌어들인 지방의 작은 수입으로는 가족을 부양하는 것조차 힘들었으며 쓸모없는 것으로 생각되는 소비재로 자신을 채운다는 건 생각할 수도 없었다. 하지만 이탈리아에서 그들이 받은 급여는 이 모든 것을 바꾸어놓았다. 화장을 하고 유명 브랜드 옷을 입는 법을 알게 되었을 때 부유하고 화려한 여성 고용주들은 그들의 역할 모델이 되었다. 많은 고용주들은 그들의 충성스러운 직원에게 값비싼 새 옷과 약세사리를 사주거나 자신들이 쓰던 사치품을 내주었다. 면접 이후 필자가 참석한 데뷔탕트 파티의 손님으로 온 린다와 마주했을 때 그녀는 머리를 금발로 염색하고 얼굴은 풀메이크업을 했으며 밝은 노란색의 핫팬츠와 부츠를 착용하고 있었다.

필라핀 가사노동자들은 베네통(파도바에서 그리 멀지 않은 트레비조에 본사를 둔 이탈리아 기업), 자라, 프라다, 아르마니의 옷을 사고 버버리, 에르메스, 마이클코어스, 루이뷔통의 핸드백을 구매했다. 베라는 발렌티노 웨딩드레스를 입고 백인 이탈리아 약혼자와 결혼식을 올렸다.<sup>38)</sup> 루이즈는 파도바와 밀라노의 고급 의류 및 약세사리 브랜드에서 실시하는 시즌 세일 기간에는 필리핀 가사노동자들이 눈에 많이 띈다고 말했다(면접에서 그녀는 유명 브랜드 아울렛 매장의 세일 행사에서 팔리핀인을 발견하지 못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sup>39)</sup> 필리핀 이주자와 필리핀인 관리인 사이의 중재자로서 필리핀인 커뮤니티에서 매우 적극적으로 활동한 조셉이 밝힌 바에 따르면(그는 수차례 데뷔탕트 볼의 사회를 맡은 적이 있다) 많은 필리핀인들은 특히 시즌 세일 기간의 할인가로 유명 브랜드 제품을 구매한다. 그들이 비록 가사노동자라

하더라도 그 정도 가격은 지불할 여력이 되었기 때문이다 (“가사노동자라도 이탈리아의 고급 제품을 구매할 여력은 있습니다”).<sup>40)</sup> 유명 브랜드 핸드백(특히 루이뷔통을 선호)의 구매는 최고의 상으로 이탈리아에서 일하는 필리핀 여성임을 드러내기 위한 필수 약세사리였다. 이랜질린이란 면접에서 말했다, “루이뷔통 가방을 갖는 것은 모든 젊은 여성들의 꿈”이다.<sup>41)</sup> 청소와 다리미질 등의 여러 일을 하고 있는 한부모 어머니 마돈나는 면접을 잠시 멈추고 새로 산 루이뷔통 가방을 가져와 필자에게 보여주고 사진을 찍도록 했다.<sup>42)</sup> 루이즈는 필리핀의 친척들이 루이뷔통 가방을 매고(또는 다른 유사 유명 브랜드 약세사리를 걸치고) 돌아오는 모습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물품이 이탈리아에 사는 필리핀 여성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하나의 기표이기 때문이다.<sup>43)</sup>

빈틈없는 필리핀 가사노동자 루시는 그녀의 고용주가 빌라 지하의 아파트에 가족을 무상으로 살게 해주어 더 많은 급여를 저축할 수 있었다. 그녀는 또 두 가지 일을 하며 야채 판매 등의 기타 사업 활동에도 종사했다. 사업 수완이 좋은 그녀는 필리핀 라구나주의 산타로사에서 몇 채의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었다. 결혼식이나 은혼식에서 대모 역할을 맡아달라는 요청을 자주 받을 정도로 루시는 파도바의 필리핀인 커뮤니티에서 명성이 높았다. 또 그녀의 딸은 플로레스테마요 축제(산타크루자<sup>Santacruz</sup>, 필리핀인들이 파도바에 소개한 필리핀 축제)의 여왕, 즉 레이나 엘레나로 뽑히기도 했다. 레이나 엘레나의 부모들은 축제에 참가한 모든 이들을 대접해야 했으며 따라서 재정적으로 부유한 집안의 딸들만이 이러한 영예를 누릴 수 있었다. 이것은 마을 엘리트 가문의 딸들에게 주인공 역할을 맡도록 요청하는 필리핀에서의 관행과 다르지 않았다.<sup>44)</sup> 경제적으로 성공한 파도바의 필리핀 여성이라는 루시의 명성은 또한 그녀가 소장하는 여러 유명브랜드 핸드백을 통해서도 과시되었다. 파도바의 한 성당 강당에서 열린 50세 생일파티에는 260유로를

들어 주문제작한 3단 케이크가 있었는데 그것은 그녀의 가방 물신을 가리키고 있었다. 케이크의 맨 밑단은 구찌색으로 장식되었으며 두 번째 단은 버버리의 친숙한 격자무늬 디자인이, 맨 윗단에는 마이클코어스의 상표 디자인이 담겼다.<sup>45)</sup> 필자가 같은 장소에서 열린 오로라의 18세 생일파티에 참석했을 때 나는 그녀의 어머니와 몇몇 손님들이 버버리와 루이비통 핸드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필리핀인들은 일요 미사에서부터 생일파티와 성인식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모임이 있을 때 유명브랜드 옷을 착용한다.<sup>46)</sup> 지위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유명브랜드 제품을 걸쳐야 한다는 기대가 이미 존재한다(그리고 일부는 고용주가 입다가 그들에게 준 유명 디자이너의 옷을 입기도 한다).<sup>47)</sup> 두 명의 피면접자는 비공식 모임에서조차 과도하게 차려입는 이러한 대중적 관행을 속물근성을 부추긴다는 점을 들어 비판했다.<sup>48)</sup> 린다가 보고한 바에 따르면 이탈리아를 출발해 마닐라 국제공항에 도착한 필리핀인들은 보통 자신들이 유럽에서 돌아오는 길임을 과시하기 위해 (더운 열대성 날씨에도 불구하고) 부츠와 트랜치코트 복장을 하거나 값비싼 의상을 착용한다고 보고했다. 그녀가 보기에 이는 그들이 가사노동자라는 자신의 지위를 수용할 수 없음을 가리키는 것이었다.<sup>49)</sup> 이런 점에서 패션을 고르는 건 사회적 하향이동을 보상하는 대응전략인 셈이다.

필자가 보기에 이러한 의상의 변화는 이주자들이 가사노동에 의해서만 자신의 정체성이 정의되는 것을 거부하고 그들의 고용주가 속한 이탈리아 중간·상층계급과의 동등한 지위를 선언하는 기호이다.<sup>50)</sup> 밀라노에서 일하는 레티사에 따르면 필리핀인들은 마이클코어스, 구찌, 아르마니 제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차려입을 때는 그들의 고용주를 능가하는 경우도 있었다.

옷을 입고 꾸미는 데에는 그들의 고용주를 능가할 거예요. 그들이 가사노동자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할 겁니다. 그들은 잘 차려입어요. 하이힐을 신고 무릎까지 올라오는 하이컷 부츠도 신죠. 옷은 또 홀리스터나 아르마니 같은 유명브랜드 옷이에요.<sup>51)</sup>

패션(또는 같은 의미로 유명 디자이너 제품)의 사용이 저항을 의미한다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다. 1940년대 아프리카계 미국인과 멕시코계 미국인들은 양장점에서 맞춘 값비싼 주트 슈트를 활용해 노동 계급의 지위를 거부하고 백인들에 의해 인종적으로 분할된 공공장소를 되찾았으며 또한 미국 태생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공해냈다.<sup>52)</sup> 하와이와 미 서부 해안에서 일하던 필리핀계 미국인 농업노동자와 알래스카 출신의 통조림 공장 노동자들 역시 고가의 맞춤 정장인 더블 슈트 차림을 하며 할리우드 스타들처럼 옷을 입었다. 유행을 따르는 멋쟁이가 된다는 것은 일시적으로 육체노동의 낙인을 지우고 여가 시간만이라도 백인 사회와 동등함을 선언하는 것이었다.<sup>53)</sup>

2018년 8월 파도바에 한 달간 머물렀을 때 필자는 딸의 성년(18세)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된 성인식 파티에 두 차례 참석한 적이 있다. 두 경우 모두 성인이 된 딸들은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총 다섯 차례에 걸쳐 옷을 갈아입었다. 행사 때 입은 드레스는 필리핀 라구나주 알라미노스의 디자이너들에 의해 맞춤 제작된 것이었다. 두 행사 모두 200명 이상의 하객이 참석한 가운데 한 성당 강당에서 열렸으며 이 중 한 행사는 5,000유로 이상의 경비가 소요되었다. 두 성인식에서 행사의 주인공과 18명의 친구들은 특별한 안무의 코티용 댄스를 추었고 데뷔 탭트는 18송이의 장미를 선물한 18명의 남성들과 춤을 추었다. 이러한 행사는 필리핀 상층 계급이 여는 성년 축하행사를 본뜬 것이었다.



필리핀의 엘리트와 파도바 필리핀인들의 차이는 그 규모와 엄숙함에 있었다. 필리핀의 엘리트들이 5성급 호텔에서 파티를 개최하고 데뷔탕트의 옷은 필리핀의 일류 디자이너에 의해 제작되었던 반면에, 파도바의 필리핀인들이 가진 것은 성당 강당이라는 보다 소박한 장소였으며 의복은 지방 재봉사에 의해 제작되었다.

제보자들에 따르면 부모들은 딸들에게 그들이 특별하다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이날 하루에 돈을 쏟아부을 용의가 있었다. 사회자의 진행 속에서 4시간 이상 계속된 프로그램을 위해 데뷔탕트와 그녀 가족의 친구와 친지들 다수가 동원되었다. 친구와 가족들은 주인공에게 18층이의 장미, 18번의 소원, 18번의 춤, 18잔의 술 등을 선물하는 정교하게 연출된 프로그램에도 참여했다. 이 프로그램은 필자가 2015년 참석한 바 있는 50세 생일파티 때와 매우 흡사했다. 당시에도 주인공의 친구들은 그에게 불 켜진 초와 선물을 주고 노래와 춤을 공연했다. 긴 프로그램을 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한 많은 참석자들이 동원된다는 점에서 이러한 행사는 필리핀에서의 생일파티와는 달랐다. 이런 점에서 축하행사는 단지 주최자의 경제적 지위나 그들이 행사의 주인공에게 가지는 애정을 보여주는 자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또한 유대감을 형성하고 공동체의 정체성과 소속감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필자가 처음 참석한 데뷔탕트 파티는 산타로사 출신의 필리핀인들이 개최한 것이었다. 밀라노에 거주하고 일하는 산타로사 출신의 필리핀인들이 버스로 두 시간을 달려 행사에 참석했다. 이러한 축하행사는 전문 사진사 또는 영상촬영기사에 의해 동영상으로 기록되었으며 페이스북에 업로드되어 이탈리아의 친척과 친구들뿐만 아니라 더욱 중요하게는 필리핀에 있는 친구와 가족, 마을사람들과도 공유되었다. 따라서 바로 이러한 공개적 스펙터를 역시 자신들이 필리핀의 엘리트들이 고국에서 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일생의례를 개최할 수 있는 성공한 이주자임을 세상에 선언했다. 사진과

동영상에 포착된 것은 그들의 일하는 모습이 아니라 중간계급 필리핀인으로서의 새로운 정체성이었다.

필자가 면접한 제보자들 대다수는 이탈리아에 오기 전 자신이 살던 마을을 떠난 적이 없었다. 하지만 그들은 이제 세계여행자가 되었다. 휴가 기간 동안 그들은 이탈리아와 유럽 곳곳을 여행했다. 여행지에는 베니스(파도바에서 기차로 30분 거리에 불과), 로마, 코르치나, 슬로베니아, 런던, 부다페스트, 크로아티아, 리스본, 바르셀로나, 파리, 트리에스테, 암스테르담, 루르드, 몰타, 예루살렘, 스위스, 폴리아 등이 포함되었다. 페이스북에는 친퀘테로, 밀라노 등의 이탈리아 관광지 여행 및 파리, 런던, 바르셀로나(바르셀로나에는 많은 산타로사 주민들의 친척들이 거주하고 있어 그들은 이곳에서 잠시 머물 수 있다), 비엔나, 오슬로, 슬로베니아로의 휴가 채류 기록들이 게시되었다. 일부 여행은 필리핀인들을 위해 특별 편성된 저렴한 패키지 버스타우에 의해 활성화되었다. 8시간 비엔나 밤샘 (버스타우를 한 예로 런던에 따르면 그 비용은 35유로에 불과했다.<sup>54</sup>) 이러한 버스타우는 최소 50명의 승객을 수용할 수 있었다. 몇몇 인기 있는 목적지에는 이탈리아 북부 전역과 브레이크 호수, 코르티나, 트렌토, 피사, 플로렌스, 트리에스테, 로마 등이 포함되었다. 필리핀인들이 독실한 가톨릭 신자들이었기 때문에 성지순례는 매우 인기가 있었다. 필자와 면접한 이들 중 많은 이들이 루르드, 파티마, 토스카나(아시시의 성 프란체스코), 폴리아(파드레 피오) 등을 다녀왔다. 모두 종교적인 성지순례였다. 장기 휴가를 보내기 위해 필리핀으로 돌아간 뒤에도 그들의 여행은 계속되었다. 그들은 보홀의 초콜릿 언덕, 타가타이의 타알 호수, 세부 해변, 팔라완의 풀빌라 등을 방문했다. 대부분의 여행은 박물관, 역사 유적지, 미술관 방문보다는 관광과 쇼핑에 치중되었다.(Munnecom 2015).<sup>55</sup> 아테네에서 KASAPI-HellaS에그리스 필리핀 노동자 연합을 운영하는 데비 발렌시아는 필리핀 가사노동자들을 위한 그리스 관광을

준비했을 때 볼 거라고는 바위와 돌밖에 없는 고대 그리스 유적지를 데려간다면 그들이 불만스러워 했다는 고충을 필자에게 털어놓았다.<sup>56)</sup> 이런 점에서 그들은 아직 유럽 역사와 예술의 진면목을 알아볼 수 있는 엘리트 지식인들의 취향을 습득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부르디외에 따르면 이러한 취향은 높은 문화자본의 선결조건이 될 것이다.<sup>57)</sup> 하지만 자녀 세대가 그들의 부모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조짐은 엿볼 수 있었다. 이변절련에 따르면 이탈리아에서 방문한 역사적 장소의 유래와 의미를 설명해 준 것은 이탈리아 학교에서 수학하고 있는 그녀의 10대 자녀들이었다.

### 집으로서의 이탈리아식 빌라: 이동하는 가정성?

두 필리핀 이주자들이 몇 달 만에 만났을 때 그들이 통상적으로 던지는 질문은 “카일란 카 우우위(kailan ka uuuwi?)”(언제 집으로 돌아갈 것이냐는 의미)이다. 물론 이 경우에 집은 언제나 필리핀에 있는 마을이나 군, 또는 도시를 의미한다. 그것은 결코 해외의 이주수용국을 의미하지 않는다. 사회학자 엔 르 에스피리투(En Le Espiritu)는 미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의 필리핀인들을 다룬 민족지학 연구이자 아시아계 미국인 연구협회(AAAS) 도서를 수상하기도 한 자신의 저서에 “Homebound”라는 제목을 붙였다. 이 제목은 이주자들이 수년간 미국에서 살아 왔음에도, 또 그들이 임시거주자인지, 아니면 그린카드 보유자나 미국 시민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이들 이주자가 “부정기 방문, 통화, 송금, 의료선교 및 기타 인도주의 선교 등을 통해 필리핀의 가족, 친구, 동료들과의 유대를 유지해 왔다”(Espiritu 2003: 10)<sup>58)</sup>는 그녀의 주장을 요약한다. 에스피

리투의 저서는 “위치의 정치학(politics of location), 즉 이주자들이 명백히 ‘집 아닌(not home)’ 장소와 관행에 대한 저항의 한 형태로서 어떻게 고국과의 유대를 있는 그대로 또는 상징적으로 활용하는지”를 탐구했다.<sup>59)</sup> 여기서 집(home)은 “사적인 가정 공간이자 지역사회, 마을, 도시, 국가 등 자신이 속한 더 큰 지리적 공간 모두”<sup>60)</sup>를 가리키는 것으로 정의된다. 에스피리투의 개념적 정의를 따라 집이 소속감을 경험하는 장소를 의미한다면 인종주의와 사회적 배제는 ‘강제된 집 없음(enforced homelessness)’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sup>61)</sup> 미국의 필리핀 이주자들은 지속적 ‘집 만들기’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 ‘강제된 집 없음’에 대응했다.<sup>62)</sup> ‘집’이 ‘장소와의 유의미한 관계’로 정의된다면 이주자들에게 그러한 공간적 애착의 장소는 거의 언제나 국경 너머에 자리하고 있다.<sup>63)</sup> 필리핀과의 끈을 유지하고 소셜미디어(특히 페이스북)를 통해 마을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은 모두 국경을 가로지르는 ‘집 만들기(home-making)’의 실천이다.

필리핀 이주자들의 주기적인 필리핀 방문은 그들이 집을 경험하는 하나의 방식, 즉 이동하는 가정성(domesticity in displacement)을 보여준다. 주택을 건설하고 그곳을 여러 집기로 채우는 것은 집 만들기 프로젝트에 필수적인 것이 된다. 이탈리아의 필리핀 가사노동자 대부분은 이탈리아에서 자신의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는다. 어떤 이들은 아파트 공간을 임대하고 운이 좋은 이들은 고용주들이 아파트 전체나 방갈로를 무상으로 제공하여 송금으로 보낼 돈을 더 많이 저축하는 경우도 있다.<sup>64)</sup> 송금을 보내야 한다는 압박과 결합하여 가사노동자의 급여로는 이탈리아에서 부동산을 사는 것이 매우 어려웠지만 필리핀의 마을이나 지방에서 주택을 지을 수는 있었다. 아파트를 비롯한 메트로 마닐라의 부동산 가격은 대다수의 해외 가사노동자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으나 농촌 지역에서는 토지 가격이 훨씬 저렴하여 상층 중간계급이나 엘리트들이 사는 곳과 같은 넓은 평수의 신축 맨션을 짓는 것이 가능했다.<sup>65)</sup>

이탈리아 남성들과 결혼하는 이탈리아의 필리핀 여성들과 가사노동 의 일에 종사하는 이들은 이탈리아에서도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다. 필자 또한 토리노에서 주택을 구매한 한 필리핀 여성 간병인을 알고 있지만 그녀는 독신이다 이탈리아에서 20년 이상을 살았다. 이후 그녀는 은퇴하여 필리핀 남부의 고향마을에서 살았다. 하지만 그녀의 경우는 매우 예외적인 것이다. 다수의 피면접자들은 고향 지역의 부동산에 투자했다. 많은 필리핀 가사노동자들이 이탈리아에서 오랜 기간 살았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또 이들 중 일부는 이미 이탈리아 시민권을 획득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제보자들은 필리핀에서 은퇴하고 싶다고 필자에게 털어놓았다. 필리핀에 집을 갖는 건 신규 주택 건설을 단지 이주 서사의 기념비나 고된 노동의 보상이 아니라<sup>66)</sup> 미래를 위한 투자이자 은퇴 후에 돌아갈 '집'으로 여기는 많은 신중한 이들의 목표가 되었다.<sup>67)</sup>

일을 찾아 이탈리아로 이주하기 전 이들 필리핀 여성들 다수는 집을 소유하지 않았다. 그들은 소박한 집에서 부모와 함께 살거나 아파트나 주택을 임대했을 것이다. 그들은 이탈리아에서의 임금을 필리핀 페소화로 환전하여 부모의 안락한 은퇴생활을 위해 본가를 개조하거나 자기 가족들이 살아갈 신규 주택을 지을 수 있었다. 이들이 선택한 건축 양식은 고용주의 집과 똑같은 이탈리아식 빌라였다. 이러한 건축 양식은 일반 주택 양식 또는 필리핀의 엘리트들이 선호하는 현대적인 캘리포니아식 맨션과 차별화되었다. 일부 주택에는 필리핀 비사야 지역의 ('대리석 수도'로 여겨지는) 롬블론주에서 들여온 대리석 기둥도 있었다.

메트로 마닐라에서 차로 1시간 반 거리에 있는 라구나주 산타로사의 한 작은 마을은 이탈리아에서 가사노동자로 일하는 소유자들이 화려한 이탈리아식 건축 양식으로 지은 맨션들이 많아 "리틀 이탈리아"라는 별명이 붙었다. 산타로사는 편자 모양의 지대로 총면적은 802.28헥타르에

이른다. 마을은 과실수와 화전 농업에 의지해 살아 왔다. 수확이 계절에 의존하는 데다 큰비로 황폐해지는 경우가 잦아 마을사람들이 해외에서 일을 구하는 동기가 되었다. 1974년 최초의 이주자들이 사우디아라비아로 떠났다. 뒤이어 1978년에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더 높은 급여를 제공하는 이탈리아와 스페인으로 향했다.<sup>68)</sup>

산타로사 주택의 물리적 구조는 파랑, 분홍, 주황, 초록의 파스텔 색조로부터 현관에 사용된 대리석과 모기 때문에 거의 사용되지 않은 테라스 설치에 이르기까지 지중해풍 양식을 과시한다. 왜 이탈리아식 주택을 짓고 싶었는지 물었을 때 린다는 '소셜<sup>sosyal</sup>'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라고 대답했다.<sup>69)</sup> '소셜'은 '고급, 상층, 부유한, 특권층' 등을 함축하는 구어식 표현으로 부르디외라면 이를 구별짓기로 정의했을 것이다. 린다는 필리핀에서 '매맞는' 아내였으며 한부모 어머니로서 자녀들을 칸루방에 사는 부모님께 맡기고 이탈리아로 이주하였다. 칸루방의 게이티드 커뮤니티에 위치한 린다의 이탈리아식 빌라는 한부모 어머니에서 가족들에게 중간계급의 생활양식을 제공할 수 있는 가장으로 변모한 그녀의 극적인 성취를 상징했다.

필자는 소유자 중 한 명이 휴가를 보내기 위해 필리핀에 와 있을 때 이들 주택 몇 곳을 방문해 볼 매우 특별한 기회를 누렸다. 평소에는 이들 주택이 비어 있고 친척들이 단단히 지키기 때문에 이는 매우 드문 기회였다<sup>(사진1, 사진2 참조)</sup>. 바탕가스주 마비니시(메트로 마닐라에서 차로 약 3~4시간 거리)의 또 다른 '리틀 이탈리아'가 텔레비전 뉴스에서 특집으로 다루어진 적이 있었는데 이 보도를 통해 이 집들이 일 년 내내 비어있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다. 이러한 사실이 공개되면서 소유자들은 방문자나 연구자들에 대해 매우 걱정하게 되었으며 자신의 주택이 절도에 취약해지지 않을까 우려했다.<sup>70)</sup> 주택 내 차고에는 미쓰비시 파제로나 토요타 포츨너 등의 4륜구동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다.<sup>71)</sup>

집 내부를 살펴보면 화장실에는 비데(필리핀 주택에서는 흔하지 않다)가, 거실에는 샹들리에가 설치되어 있었고 라운지 바에는 위스키와 보드카를 비롯한 증류주들이 진열되어 집주인이 거의 마시는 일이 없음에도 새롭게 습득한 국제적 취향을 뽐내고 있었다(사진3, 사진4 참조).<sup>72)</sup> 주방에는 가스레인지, 냉장고, 오븐 토스터, 제빵 기구 등의 주방기구들이 갖추어져 있었다. 밀라노에 사는 테레사는 그녀의 고용주가 2년마다 주방을 개조하길 좋아한다고 말했다. 테레사는 장거리 택배를 통해 고용주가 증여한 '2년 된' 주방을 통째로 필리핀 라구나주의 산타로사로 보낼 수 있었다.<sup>73)</sup> 식품저장고는 파스타, 페레로 로쉐 초콜릿, 살라미 소시지, 올리브유, 대용량 누텔라 등으로 채워져 있었다. 레티사는 누텔라 없이 이탈리아에서 필리핀으로 돌아오는 필리핀인들은 없다고 털어놓았다. 레티사 자신은 라구나주 산로케시(산타로사에 인접한 시)로 돌아올 때 고향의 친구들에게 나눠주기 위해 (적어도 5병이 들어 있는) 누텔라 1kg을 가져 왔다.<sup>74)</sup>

자녀들의 방에는 해외에서 구매한 장난감으로 가득한 장식장이 있었다. 장난감은 플라스틱 통에 가지런히 정리되거나 유리 장식장 안에 채워져 아이들이 갖고 놀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사진5). 벽은 은제 티스폰, 방문 도시명이 새겨진 도자기 접시, 에펠탑이나 런던의 빅벤과 같은 상징적 건물 앞에서 찍은 가족사진 등 유럽 가족여행의 기념품으로 장식되었다. 이러한 장식품들은 조잡하거나 경제적 가치가 없는 물건이었지만 집의 소유자가 유럽을 여행했다는 메시지를 전한다는 점에서 엄청난 문화자본을 지녔다. 이러한 장식들은 집의 소유자를 작은 농촌 마을의 나머지 거주자들로부터 떼어놓았다. 그것은 또한 그들이 인테리어와 가구 비치를 전문 인테리어 디자이너에 맡기고 필리핀과 해외에서 전해 내려온 고가의 골동품이나 가보 등의 장식품을 소장하는 필리핀 엘리트 여성들과는 구별되는 집단임을 나타냈다.<sup>75)</sup>



사진1. 라구나주 산토로사의 비어 있는 이탈리아식 빌라 주택. 대리석은 필리핀 롬블론주에서 가져왔다.



사진2. 필자가 들기로 이 주택은 산타로사에 지어진 최초의 이탈리아식 빌라 중 하나이다.



사진3. 사진2의 이탈리아식 빌라 내부에 꾸며진 바 인테리어. 집의 소유자는 술을 마시지 않는다.



사진4. 라구나주 산토로사에 소재한 한 이탈리아식 빌라의 내부 모습.



사진5. 산타로사에 소재한 한 이탈리아식 빌라의 내부. 장난감들은 2년마다 돌아오는 이주자를 기다리며 비닐로 덮여 있다.



사진6. 라구나주 산토로사에 소재한 한 이탈리아식 빌라의 침실 화장실에 비데가 설치되어 있는 모습.

\* 사진출처: 모든 사진들은 저자가 직접 촬영하여 제공

이탈리아식 빌라와 내부의 물건들은 그 소유자가 이탈리아에 살고 일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냈다. 린다에 따르면 이탈리아식 빌라를 밝은 색으로 짓는 것(그녀의 집은 처음에는 파란색이었다가 이후에 노란색과 베이지색으로 바뀌었다)은 '카타스 낭 이탈리아'의 기호로 이는 그 집이 이탈리아 이주 노동자의 피와 땀, 눈물로 지어졌음을 말하는 것이었다. 주택의 내부는 또한 소유자가 이탈리아식 관습을 채택했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한부모 어머니인 린다는 칼람바에 위치한 그녀의 이탈리아식 빌라 사진을 필자에게 보여주며 집에는 5개의 화장실이 있으며 본인의 침실에 딸린 화장실에는 비데가 설치되어 있다고 자랑스레 말했다. 이탈리아에 체류하기 전에 린다가 비데를 사용한 적은 없었다. 그녀는 용변 뒤처리를 위해 타보<sup>tabo</sup>(보통 플라스틱으로 만든 국자 모양의 바가지)만을 사용했다. 하지만 이탈리아에서 익숙해진 뒤로는 계속해서 화장실에서 비데를 사용했다(사진6, 76)

또 면접을 통해 이탈리아에 있는 많은 필리핀인들의 음식 취향도 쌀보다 파스타를 선호하는 쪽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탈리아에 있을 때 이주자들은 보통 이탈리아 음식을 먹었다. 예컨대, 저녁식사 초대를 받아 루시의 집을 방문했을 때 그녀는 비폴리를 혼합, 구운 송아지 고기, 구운 라디키오 양상추와 함께 대접했다. 한 제보자는 모든 이탈리아 파스타 소스를 만들 수 있다고 크게 자랑하며 말했다. 하지만 치타델라에 따르면 250명의 손님을 대접하는 데 들인 출장 요리 비용이 1,600유로나 되었음에도 일요 기도모임을 비롯해 필자가 파도바에서 관찰한 필리핀인 행사에서는 모두 필리핀 음식이 제공되었다.77) 그 이유를 물었을 때 제보자들은 이탈리아 음식은 늘 먹는 것이어서 어떤 자리를 특별한 행사로 각인시킬 방법은 필리핀 음식을 대접하는 것밖에 없다고 대답했다. 필리핀 음식은 '특별한 때'를 위해 남겨두는 것이지 결코 일반적인 게 아니었다.

‘발릭바얀<sup>balikkbayan</sup> 상자’로 알려진 커다란 상자에 정기적으로 물건을 담아 보내는 필리핀 이주자들의 관행은 한 해에 걸쳐 조금씩 빈집을 채우는 한 가지 방식이었다. 이러한 물건들은 이주자가 돌아와 가족 및 친구들과 함께 즐길 날을 기다리며 빈집을 가득 채웠다. 이주자들은 엄청난 양의 여가시간을 쇼핑과 쇼핑한 물건의 포장에 투자한다. 이들은 조금씩 물건들을 구매하며 필요한 물건을 찾기 위해 중고 매장, 할인 시장, 가판대를 돌아다니는 수고를 마다않는 이들도 있다. 필리핀으로 보내질 날을 기다리며 1년 내내 모은 고용주의 선물(예. 테레사가 산타 로사에 통째로 보낸 고용주가 쓰던 주방), 음식, 약 등이 필리핀인들의 집 한 칸을 차지하고 있다.<sup>78)</sup> 필리핀으로 향할 이 거대한 상자(일부 상자의 크기는 24 x 24 x 45에 달한다. OFW Pinoy Star 2013: 14)를 채우는 엄청난 과제, 또 물품 구매와 운송에 지출되는 금액은 이주자들이 집 만들기 프로젝트에 얼마나 많은 비용을 투자하는지를 보여준다.<sup>79)</sup>

하지만 ‘집’이 무엇이며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는 개념적으로 여전히 논쟁적인 문제이다. 2018년 8월 휴가를 보내기 위해 빌마가 2년 만에 산타로사로 돌아갔을 때 그녀의 페이스북에는 필리핀에서의 많은 사고 모임을 담은 게시물들이 거의 매일 올라왔다. 이러한 모임은 그녀의 가족들이 빌라에서 주최한 것이었다. 이러한 페이스북 게시물은 그녀가 파도바에서 다시 일을 시작하면서 중단되었다. 2014년과 2018년 사이 그녀는 짧은 휴가 기간 런던에서 보낸 가족여행이나 파도바에서 그곳 필리핀 커뮤니티와 함께한 특별한 행사 등을 담은 사진을 올렸다. 필자는 빌마와 8년간 페이스북 친구로 지냈지만 그녀의 이탈리아 고용주가 무상으로 살게 해 준 방갈로 사진은 결코 본 적이 없다. 이런 점에서 그녀가 자신의 ‘집’으로 점찍은 공간, 즉 그녀가 ‘집’에 있다는 느낌을 갖는 장소는 필리핀에 있는 그녀의 이탈리아식 빌라였다. 하지만 빌마가 필리핀에서 은퇴할 계획을 갖고 있더라도 그녀의 남편 바비는

2015년의 한 면접에서 “마음의 갈등을 느낀다”고 고백한 바 있다. 이탈리아에 있을 때는 필리핀이 그림지만 필리핀에 있을 때는 이탈리아가 그림다는 이유였다.<sup>80)</sup> 바비의 고백은 한 곳에서는 집에 있다는 느낌을 온전히 가질 수 없는 이주자들의 이동감(feeling of displacement)을 환기한다.

## 결론


많은 NGO들이 과시적 소비로 비판한 것은 사실 그들을 눈에 띄지 않고 고분고분하게 고용주의 변덕에 따라야 하는 노동자로 격하한 이주 수용국에 대한 저항으로 해석될 수 있다. 과시적 소비는 또 가사노동이라는 비숙련 직업을 받아들인 그들의 결정 — 일부 이주자들에게 이는 수치심의 이유가 되었다 — 을 보상하기 위한 대응전략이었다. 패션 선택과 사교행사에 의해 가장 두드러지는 자기표상을 통해 이들은 자신들이 가사노동에 의해서만 정의되는 것을 거부한다. 필자는 이들이 자신의 직업을 가사노동자나 간병인으로 언급한 페이스북 게시물을 본 기억이 한 번도 없다. 예외라면 필리핀 간병인 3명이 작은 생일케이크와 함께 그들이 돌보는 노년의 고용주를 위해 이탈리아어로 생일 축하곡을 부르는 동영상 정도가 있었다. 하지만 이 동영상에서조차 필리핀 여성들은 주인공을 위해 작은 축하행사를 여는 ‘주최자’의 위치에 있었다. 소비는 또한 필리핀 이주자들이 시골 여자에서 도시화된 국제적 주체로의 변신을 나타내는 한 가지 방법이었다. 패션, 가정용품, 음식, 여행에 관한 취향은 모두 그들이 일을 위해 이탈리아로 이주하면서 습득한 것이었다. 그들의 역할 모델은 부유한 그들의 고용주와 필리핀의 엘리트들이었다. 쉬는 날에는 유행하는 유명 브랜드 옷을 입고 루이뷔통

핸드백을 들고 다니며 소비행동의 모방 대상인 자신의 고용주와 동등한 지위임을 주장했다.

피에르 부르디외의 모델을 취향판단에 적용하자면 이 필리핀 가사노동자들은 필리핀에서 경제자본을 획득했다고 할 수 있다. 그들이 받는 유료화 급여를 폐소화로 계산하면 경제적 위치는 필리핀 하층계급에서 중간계급으로 상향되기 때문이다. 이탈리아인 고용주 및 필리핀 엘리트의 소비 관행과 습관을 모방함으로써 그들의 문화자본 또한 증가했다. 제보자 중 파도바 대학교의 역사적인 해부학 극장이 있는 팔라초 델 보나 클래식 콘서트, 또는 오페라(파도바와 인근의 베로나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다)에 다녀온 이들은 단 한 명도 없었지만 대부분은 지오토의 벽화를 보기 위해 파도바의 스크로베니 예배당을 다녀왔다. 그럼에도 필자가 참석한 대규모 파티에서는 소도시 아비투스의 기호들이 관찰되었다. 행사가 열리는 성당 밖에서 야채를 파는 여성 하객, 이탈리아 교구 소속의 백인 성당 관리자가 달려와 토요 저녁 미사를 방해한다고 꾸짖게 만든 시골벽적한 잡담, 노래와 춤을 즉흥적으로 요청하는 것을 비롯해 지나치게 길고 아마추어적인 프로그램, 타갈로그어로 진행된 4시간 반의 터무니없이 긴 프로그램 동안 하객들의 주목을 끌려는 사회자의 헛된 시도 등이 그러한 것으로 필리핀 엘리트라면 이를 시골풍의 허섭스레기로 일축했을 것이다. 하지만 바로 이 필리핀 가사노동자들은 그들의 필리핀 친척들과는 구별되는 새로운 취향과 습관을 획득했다. 이탈리아가 자신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되돌아보면서 린다는 칸투방에 살 때는 필리핀의 고향 Goya 초콜릿(1956년부터 제조된 필리핀산 지역 초콜릿으로 수제 제품은 아니다)에도 만족했지만 이제는 필리핀에 가더라도 이 제품을 먹지 않을 거라고 말했다.<sup>81)</sup> 케이트리 또한 비슷한 사례를 언급했다. 그녀 역시 칼람바에 살 때는 캐드베리 초콜릿에 매우 만족했지만 더 이상은 먹지 않을 거라고 했다.<sup>82)</sup> 필리핀 가사노동자들은

페레로로쉐 초콜릿을 더 선호한다. 예컨대, 빌마는 작별선물로 페레로로쉐 한 상자를 선물하기도 했다. 필자는 대부분 페드로키 카페에서 제보자들을 면접했다. 이곳은 파도바 대학교와 가까워 19세기에는 이탈리아 학생들과 지식인들의 모임 장소로 이용되었던 파도바 도심의 역사적 랜드마크이기도 하다. 음료 주문을 권했을 때 그들은 모두 스프리츠를 주문했다. 이러한 행동은 그들이 유럽화되고 도시화된 국제적 필리핀인임을 분명하게 표시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필리핀 라구나주에 살고 있을 때 취득된 아비투스의 일부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의 고용주인 베네토 지방 이탈리아인들의 문화와 관행을 채택했음을 드러냈다. 농촌 지역 출신의 필리핀 여성들이 알코올이 없는 가벼운 음료만을 마신다는 점에서 페드로키 카페에서 스프리츠를 마시는 것은 자신들이 더 이상 시골여자가 아니라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하는 것이었다.

그들의 소비 습관은 자신들이 이탈리아에서 화장실을 청소하는 가사노동자가 아니라 유럽화된 취향을 가진 성공한 중간계급 이주자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하지만 중간계급으로서의 새로운 지위를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필리핀에 이탈리아식 빌라를 짓고 그곳에 가구를 비치하는 일이었다. 필리핀의 이탈리아식 빌라는 소유자의 노동생활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이주자들은 필리핀에 있는 친척들에게 자신이 하는 일, 또는 그들이 해외에서 경험하는 외로움이나 차별에 대해 말하지 않기 때문에 필리핀에 남아 있는 마을 사람들은 그들이 큰 노력 없이도 벌 수 있는 많은 가치분 소득을 보유하고 있다고 상상했다. 이러한 스테레오타입은 남은 마을 사람들도 이주자의 수입과 물질적 재화를 함께 누릴 자격이 있다는 생각을 불러일었다. 친구, 가족, 마을 사람들은 이주자들이 이탈리아에서 구입한 사치품을 그들과 함께 나누리라 기대했다. 이러한 끝없는 선물과 돈 요청은 이탈리아의 필리핀 이주자들이 빚을 지는 한 가지 이유로 거론된 바 있다.<sup>83)</sup>

이처럼 필리핀에서는 가사노동이라는 화제가 베일에 싸여 그 침묵이 유지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탈리아에서도 되풀이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파도바에 있을 당시 필자가 차를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친절하게도 루르드가 증재해 마르코와 이벤절린이 필자를 엘리스의 성 인식 파티까지 태워준 적이 있었다. 가는 길에 부모들이 축하행사에 들인 많은 비용(5,000유로 이상)을 듣고 필자가 놀라워하자 가사노동자가 아닌 필리핀인 마르코는 필리핀인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화장실을 청소해 가며 왜 하룻밤 사람들을 먹이는 데 그 돈을 탕진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마르코의 말은 단지 파도바에 있는 필리핀인들의 과시적 소비에 대한 비판이 아니었다. 그것은 외면할 수 없는 하나의 현실, 즉 가족이 딸에게 값비싼 파티를 열어줄 여유가 있음을 보여주려는 시도에도 불구하고 부의 공개적 과시는 가사노동의 낮은 지위를 지우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현실을 가리키고 있었다. 멋진 맞춤 이브닝드레스를 입은 데뷔탕트가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이 공연을 지켜보는 파도바의 하객들은 이 하루의 성대한 행사를 위해 지출한 금액이 육체노동에서 나온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필리핀의 이탈리아식 빌라는 실로 그들의 '꿈의 집'이었다. 이 공간이라면 가사노동의 낙인 없이도 그들이 번 돈의 소비력을 기념할 수 있는 것이다. 

〈원문출처〉

이 글은 2022년 5월 20일-21일 한성대 ‘이주의 인문학’ 사업단에서 주최한 국제학술대회 〈이주의 인문학: 감정, 문화, 그리고 지식〉에서 발표된 원고 “When Home Is an Empty Italian Villa in the Philippines: The Semiotics of Consumption of Filipino Domestic Workers in Italy, 1980s-2018”를 저자의 동의하에 번역한 것입니다.

〈저자소개〉

**미나 로세스 (뉴사우스웨일즈 대학교)**

미시간 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미나 로세스(Mina Roces)는 호주 뉴사우스웨일즈 대학교(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Sydney, Australia) 인문언어대 사학과 교수입니다. 대표적인 저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Women, Power and Kinship Politics: Female Power in Post-war Philippines* (Praeger, 1998), *Kinship Politics in Post-war Philippines: The Lopez Family, 1946-2000* (de la Salle University Press 2001), *Women's Movements and the Filipina, 1986-2008*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12), *The Filipino Migration Experience: Global Agents of Change* (Cornell University Press, 2021), *Gender in Southeast Asia* (Cambridge University Press, January 2022). 그녀의 현재 프로젝트는 1950년대부터 오늘날에 이르는 소비자로써의 필리핀 이주여성에 관한 것입니다. 이주에 관한 그녀의 작업은 이주민에 관한 주변 에스닉 집단으로의 일반적인 묘사에 새로운 차원을 도입하여 필리핀 이민자들을 소비자이자 투자자로서, 박애주의자와 활동가로서, 가족과 젠더 형성을 변모시키는 변화의 행위자로서 그리고 그들 자신의 역사에 대한 역사로서 개념화하는 다양한 대안적 방식을 제안하고 있습니다.